

대원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남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탱화의 변신... "시대상 담는다"

노트북 등 현대문물 등장 사찰 새 문화로

‘호법신장들이 노트북을 통해 사바세계의 정보를 파악하고 휴대전화로 중생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노트북, 미사일, 방독면, 축구공 등 현대 문물들이 탱화 속에 등장하고 있다. 낯선 모습이지만 흥미롭다.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한 탱화들이 서서히 새로운 사찰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 영남대학교 · 관음사가 11월 1일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에 봉안한 신중탱화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 대웅부전의 감로탱화, 도피안사 대웅전의 300년 유화탱화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관음사 신중탱화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들이 노트북과 미사일,

신장들 칼 · 도끼 대신 미사일 무장 2002 월드컵 기념 축구공 등 삽입 전통채색기법서 탈피 유행 탱화도

방독면 등 최첨단 무기를 들고 서있어 눈길을 끈다. 용주사 감로탱화 역시 이색적이다. 작년에 봉안된 이 감로탱화는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축구공을 그려 넣었다.

또 도피안사의 300년 유화탱화는 전통탱화 제작기법을 탈피, 서양화에 주로 쓰이는 유행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20세기 초에 제

작된 흥천사 감로탱화에는 서커스하는 코끼리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전봇대, 자동차 등과 같이 표현됐다. 현재 통도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탱화의 밑그림을 모아 놓은 <한국어불화초본> 5권에는 일본 분사사가 공을 차고 여인들이 강강수월래를 즐기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탱화 속의 호법신장들이 이전까지 들고 있었던 칼 · 도끼 · 창 등 고전적인 무기를 내려놓고 현대 문화를 상징하는 도구들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관음사 주지 우학스님은 “신도와 일반인들에게 호법신장들도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친근감

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중생의 번뇌와 아픔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탱화의 변신을 시도한 사찰들은 불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탱화가 법당의 병풍으로 써가 아니라 시대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불교미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실리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 목기 끊은 지 35일(11월 7일 현재)째, 지을 스님이 상생(相生)을 위해 전혀 들어가는 허리를 부여잡고 부산시청 앞에서 도농농 소송인단 10명용 모임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생명 · 화쟁 · 원용으로 더 밝은사회 창출”

불교지식인연대 출범

혼돈과 불안정,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불교지식인들이 모여 ‘불교지식인연대’를 창립했다.

불교지식인연대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불교지식인연대에는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성기태 총주대 총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교수,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등을 주축으로 70여

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불교지식인연대는 “국내의 이슈와 생애위기 · 생명복제 등 윤리적 난제에 대해 불교적 입장에서 종합적이고도 긴 안목의 진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생명과 화쟁, 원용을 강조해, 더 나은 사회를 창출하는데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교뉴스, 이제 야후에서도 보세요.”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를 야후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붓다뉴스는 최근 야후코리아(www.yahoo.co.kr)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1월 5일부터 야후 뉴스 섹션에서 불교뉴스를 네티즌에게 제공한다.

야후 뉴스 섹션의 개편과 함께 서비스 되는 불교

관련 뉴스는 현대 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의 이름으로 매거진 코너나 종교부부이나 뉴스코너의 문화부분에서 볼 수 있다.

붓다뉴스는 매일 불교 관련 뉴스의 실시간 서비스를 지향하는 전문뉴스사이트로서 야후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장하게 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붓다뉴스 '야후'에서도 보세요

야후코리아와 제휴 5일부터 서비스

“그게 잘 있는 거가.” 전화를 들고 가도 불빛만이 횡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을 스님의 일기> 중에서

“나는 시위 떠난 화살”

는 적삼 속에서 스님의 육신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경찰 정보과에서는 강제입원이라 불가피하다며 단식을 중용하고, 스님의 뜻에 동참해온 사람들조차 어찌할 수

35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 천성산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스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꾸 흘러내리는 바지춤과 자꾸 땀이 너벅해

없는 불안함으로 서성거리지만 스님께선 “나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스님은 이제 불자들의 동침을 기다리고 있다. 불자 10만 명이 도농농소송의 소송인단이 되어 천성산 생명들을 살리는데 동참하는 날, 지을 스님은 단식을 풀겠다고 했다. 불자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관심, 스님에게 허기를 채우는 밥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다.

도농농 소송인단 동창: (051)623-9220. www.cheonsung.com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90여 선원 계미년 동안거 결제

법전 조계종 중정 등 법어 발표

계미년 동안거가 11월 8일 결제를 시작으로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0여 개 선원에서 3개월간 일제히 진행된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11월 6일 발표한 결제법어에서 “금유(金牛)화상이 항상 공양 때가 되면 밥

을 들고서 날자들어! 밥을 먹으라”고 외친 이유를 아느냐”며 “조사선(祖師禪)의 생명은 일상성이다. 이번 철의 결제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서도 늘상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각종법 방장 법어 3면
 한명우 기자 mhwan@buddhapia.com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폭력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화상님이 신선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삼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u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선사 시상상)
- 특별상
- △총림협의회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 △관음종 총무원장 △총화종 총무원장
- △대원불교 진흥원 이사장 △신수회회장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1954년 중국제강 창업 국가기업산업 육성

1972년 대한불교대학 개교 30주 기념으로 50주년 기념 기념식 개최

1979년 제1대 원로총장 취임

1990년 불교인문 개국 100년 기념식 개최

1999년 10월 1일 개교 25주년 기념식 개최

대원 정경주 이사 (1899 - 1979)

2년제 야간강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나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과정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법불교 대중불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본교 합격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 1 모집과정**
 - 대학원과정 15명 대학과정 50명 통신과정 00명
- 2 진영일정**
 - 원서교부 2003년 11월 17일 - 12월 29일
 - 원서접수 2003년 12월 1일 - 12월 29일
 - 합격자 발표 2004년 1월 14일(개별통보)
 - 대학원 면접 2004년 1월 10일(토) 14:00 본교 강의실
 - 대학(통신)과정은 서류전형임.
- 3 대학(통신)과정 특징**
 - 성적 우수자는 본교 대학원 과정 입학 자격 부여
 - 철저한 학사 관리로 효율적인 학습 효과 및 면학 분위기 조성

- 4 대학원과정 특징**
 - 개인지도교수제(Tutorial System)의 철저한 논문 지도
 - 년 1회 해외불교학술답사 실시(지도교수 인솔)
 - 졸업 후 미래불교학회 회원으로 연구 및 강의 활동 참여
 -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법사 자격 부여

* 교과 과정 등 자세한 안내는 입학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입학원서 배부처 본교 교학과, 경서원, 불서보급사, 불교방송 3층 불교문화센터, 책방 어시어온

대원불교대학 www.buddhaschool.or.kr www.idaewon.or.kr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최고의 교수진

- 장휘옥 (일본 국립동경대학교)
- 허경구 (인도라나시 한두대학교)
- 김사업 (일본 국립교토대학교)
- 김종욱 (서울대학교)
- 최형수 (동국대학교)